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허브, 지역혁신의 거점, 고용창출의 허브



권영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josephyhkwon@ccei.kr

울산대학교 경영학 박사
(전) 현대중공업 경영지원본부 전무
(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7월 15일 개소하였다. 전담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협력을 통해 조선해양플랜트, 의료자동화, 3D 프린팅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불어 센터에서는 창업 허브, 기업혁신의 거점 그리고 고용창출의 허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첨단 의료 자동화

세계수준의 의료서비스 기술과 제조기술을 융합하여 한국형 의료시스템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시스템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최근 전담기업인 현대중공업은 보행재활로봇, 환자이동보조로봇, 관절치환로봇 및 종양치료로봇을 개발하여 의료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자동화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로봇 기능시험도 하고 있다.

환자이동보조로봇과 보행재활로봇은 2014년, 종양치료로봇은 2015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승인을 받았다. 관절치환 로봇은 2016년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에이딕'이라는 보육 기업을 육성하여 환자이동 보조로봇 제작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울산대학교 병원 및 울산시립노인병원, 광주시립병원 등 6곳에 설치하여 실증작업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추가적인 업체를 발굴 및 식약처 등으로부터 인허가 획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지역 전략산업 3D 프린팅

지난해 12월 3D프린팅 산업이 울산의 '규제 프리존'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다. 3D 프린팅을 통해 창조융합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K-ICT 울산 3D 프린팅 지역특화센터'를 유치하여 3D 프린팅 Hub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3D테크샵을 통해 스타트업들 시제품 제작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D 테크샵을 중심으로 3D 프린팅 교육(1525명)과 시제품 제작지원(468건)을 실시하였고, 10개 특성화고를 선정하여 전문교사 양성과 프린터 보급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는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 교육과 더불어 울산 지역전략산업으로 3D 프린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첨단의료 산업과 융합하여 치과(사례 : CK 치과)와 바이오 프린팅(사례 : UNIST)분야에서 중점적인 사업 발굴을 추진 할 계획이다.

창업저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울산의 창업 저변은 많지 않다. 개소 초기 민간 창업보유기관인 마루 180과 센터를 연결해 서울의 좋은 프로그램을 센터에 접목하고 있다. 마루 180과 협업을 하면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센터는 마루 180과의 교류 및 협업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창업저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 저변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들은 '창문(창문의 문)을 열어라'와 '창업인턴학기' 및 '스타트업 필드 투어링'이다. '창문을 열어라'는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시공모전이다. '창문을 열어라'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집중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화 기회를 제공 하는 프로그램이다. 창문을 열어라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분야별 멘토링 및 시제품 제작 지역네트워크 연계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한 참가자에게는 입주기회 또한 제공 중이다.

창업인턴학기는 인턴기간동안 창업을 준비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인턴학기의 경우 2016년 2학기에 시범운영 해보고 2017년 1학기부터 정규과정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에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고 선배 스타트업과 네트워킹 및 실습을 통해 창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필드 투어링의 경우 울산지역의 우수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버스로 타 지역의 창업 관련 문화 체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스타트업 필드 투어링을 통해 다른 지역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센터는 창업저변 확대를 위하여 벤처캐피탈, 금융기관 등에서 투자 받기가 매우 어려운 초기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50억 원 융합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지역 창업가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울산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울산센터 전용 창업지원 엔젤펀드(가칭 울창펀드)도 조성할 예정이다.

창업, 고용의 선순환 고리

사회적으로 청년 실업률, 특히 대학졸업자의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진학율과 깊은 연관이 있다. 현재의 대학정원은 70년에도 대학정원에 비해 대략 6배정도 증가하였다. 청년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실적으로 대학졸업생들이 모두 기업에 취업이 어렵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창업과 고용존의 역할을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존은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센터 내에서 구직상담, 직무기술 훈련, 일자리 중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고용존의 여러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고용의 허브역할로 유망한 신생 벤처기업의 구인구직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울산센터의 보육기업인 닥터지와 (주)노바테크가 실제 사례이다. 닥터지는 시기능 검안 ICT 플랫폼 개발기업이다. (주)노바테크는 산업설비의 예지보전을 위한 IoT 기반 에너지 수확 스마트센서 제품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다. 닥터지와 (주)노바테크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구인수요가 발생하여 고용존과 협력하여 구인구직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의 선순환효과까지 울산시, 현대중공업과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